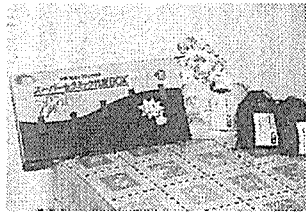


경도가 높은 죽탄(竹炭)개발



죽탄(竹炭)이 탈취 작용과 습기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 독자적인 제법으로 경도가 높은 탄으로 소성시켜,

분말상의 탄을 포제(布製)의 중간에 작은 포대를 집어 넣어서 탈취 효과를 높여 화장상자에 넣은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매달 수 있는 종류도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핸드폰의 전자파 90% 차단, 은도금섬유 사용

군제는 愛媛대학 의학부 石原謙교수의 협력을 얻어 심장 페이스 메이커 보호 이너웨어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오작동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의 침입을 90%이상 차단한다.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는 은도금 섬유를 표면에 사용하고 안쪽은 면 100%의 티셔츠 스타일이며, 1.5GHz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한 상품성능 평가에서는 안테나에서 2cm의 근거리에서 20데시벨이상, 1m에서 30데시벨이라는 높은 전자파 차단 성능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작용시에 비해 핸드폰 등의 전자파를 90%이상 차단한다고 한다. 사용자 자신이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도 동시에 판매한다고 한다.

마이너스 이온 발생신소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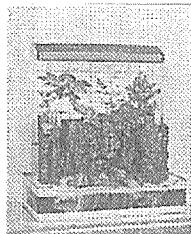
일본 에이플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마이너스 이온을 대량 발생하는 신소재를 개발, 프랜차이저 체인으로 전개한다고 한다. 신소재의 명칭은 “세시온”으로, 이온을 방출하는 회토류의 광석과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세라믹의 혼합물에 실리콘수지등의 고분자를 혼합한 복합재이다. 1그램에서 1cm2당 매초 1100개의 마이너스 이온의 방출을 지속한다고 한다. 또한 포름알데하이드나 담배의 소취효과도 있다고 한다. 마이너스 이온은 소위 삼림욕효과, 정신안정, 스트레스해소, 피로회복 등에 좋을 뿐 아니라 소취, 멸균효과도 있다고 한다.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산화티탄 광촉매로 분해성공

東京대학 공학계 연구과와 横浜市立대학 의학부는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그 자체를 산화티탄 광촉매로 분해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산화티탄 현탁액에 넣어 광조사했더니 40분만에 에스트로겐 활성이 거의 없어졌으며 이것을 이어받아 일반 배수처리의 최종단계에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에 착수했다고 한다.

터마린 신소재에 의한 신상품 개발

항상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천연 광석 토르마린의 활용은 환경 전화 소재이기도 하며, 물의 계면활성 작용과 음이온 발생, 항균, 소취작용, 생체세포 활성작용등을 테마로 급속히 상품화 되고 있으며, 그 중 한가지 [지오라마



600, 사진]은 토르마린으로 기능화된 물의 순환과 관엽식물, 수초등의 조합에 의한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을 일상 생활 공간에 적용시킨 신상품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미약전류를 이용한 미용 맛사지 기구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천연광석 토르마린을 사용한 미용기구, 상품명 [토르마린 로라]는 토르마린이 자연의 상태로 미약전류를 연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약전류를 피부살결 본래의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제품을 피부 표면에 가볍게 대서 굴려주기만 하면 피부 살결의 묵은 각질이 제거되며 아름다운 피부로 재생시킨다고 한다.

또한 크립을 긁게 하여 신체의 혈을 늘려주는데 사용하면 얼굴뿐 아니라 전신의 통증, 걸리는 곳에 사용하면 완화작용을 함께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

